

現代國語 待遇法

成 耆 徹

(서울市立大 교수, 국어학)

1. 序

待遇法이란 종래 존대법, 경어법, 공대법, 존비법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어 왔는데, 이들 모두가 관련 내용 또는 특성의 일부만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대우법’을 취하기로 한다.

言語學的인 의미에서 待遇란 話者가 聽者 또는 第三者에 대하여 대응해 가는 언어상의 표현 방법으로서, 대우 관련 인물 사이의 社會的位階 및 個人的親疎關係가 文에 실현되는 대우의 규칙을 대우법이라 한다. 어떤 대상 인물에 대한 대우란 것은 어디까지나 外的形式 즉 언어 형식을 빌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話者의 실제적인 心的待遇意圖와 언어상에 실현된 대우 표현이 항상 일치되는 것만은 아니다.

대우는 그 내용에 있어 크게 尊待와 非尊待의 둘로 구분되는데, 비존대에는 일체의 下待가 포함된다. 대우가 성립되는 데는 話者, 聽者, 第三者(主體, 客體) 및 話脈(context)의 네 요소가 필요한데, 앞의 셋이 언어적 요소라면 뒤의 화맥은 비언어적 요소라 하겠다.

대우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社會的要因에 의한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상호 관계에서 성립되는데, 대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의 橫的親疎關係(solidarity dimension)와 縱的位階關係(power dimension)이다. 이들의 兩面的 관계는 상호 독자적이어서 횡적 친소에 관계없

이 종적 위계가 엄존하며, 종적 위계에 관계없이 횡적 친소가 常存하게 된다. 횡적 친소란 기본적으로 개개인 사이의 情感的 거리이며, 종적인 위계란 곧 社會的位階로서, 연령, 사회적 지위, 血緣, 性別 등 여러 가지가 관련된다.

객관적인 사회적 諸要因에 의해 기본적인 대우 관계가 성립된다고는 해도 話者의 心理的要因 또한 주요한 역할을 한다. 객관적인 대우 관계가 화자의 대우 의도에 의해 상당히 유동적으로 달리 표현될 수 있다. 같은 대상에 대하여 존대를 하다가 비존대로 바꿀 수도 있으며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화자와 대상자와의 物理的, 心理的 거리도 대우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대상 인물이 發話 場面에 있을 때에는 존대될 경우에도, 그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존대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같은 장면에서도 대상이 직접 聽者일 때와 청자가 아닐 때 대우 표현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대우가 성립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특히 대우법이 기본적으로 문법적 현상이라기보다 話用的 現象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대우법은 특정의 문법 형태나 제한된 수의 어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규칙의 체계로서보다도 이러한 문법 규칙과 함께 話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話用—文法’의 체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2. 主體 待遇

主體란 文의 주어에 해당되는 인물을 가리키며, 主體 待遇란 이 주체에 대한 話者의 대우를 의미한다. 주체 대우는 조사 ‘-께서’와 先語末語尾 ‘-시-’에 의해서 표현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後者에 놓인다. ‘-시-’에 의해서 존대와 하대로 구분되는 주체 대우법은 매우 복잡 미묘해서 그 규칙의 체계화가 용이하지 않다.

1) a. 김선생님은 국어를 공부하신다.

b. " " " 공부한다.

a에서는 ‘-시-’에 의해 주체(김선생님)가 존대되었으나 b에서는 주체가 존대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의 결여가 반드시 非文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김선생님은 책이 많으시다.

위 文은 이른바 重主語 구조의 文이다. ‘-시-’가 쓰였는데도 ‘많으시다’의 주어는 인물이 아닌 ‘책’이어서 주체가 될 수 없다. ‘-시-’의 존대 대상은 분명히 ‘많으시다’의 주어가 아닌 ‘김선생님’이어서, 주체 존대를 주어 인물에 대한 존대로 규정한 것에 문제가 제기된다.

2)와 같은 文의 존대를 해석하는 데 있어 과거 몇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었다. 전통적인 해석은 間接 尊待라는 것으로, ‘-시-’는 주어진 ‘책’에 대한 존대 표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선생님’을 존대한다는 입장이다. 이 해석은 重主語 構文을 일단 전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70년대 이후 새로운 논의가 활발해져서, ‘김선생님’과 같은 先行 名詞를 내면의 주어로 이해하고자 하는 견해, 이것을 與格 主語로 해석하고자 하는 견해, 이를 主題로 이해하고자 하는 견해 등등 여러 가지가 제안되었으나 일반의 공감을 얻기에는 모두 문제점이 많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重主語文의 先行 名詞를 일단 주어로 보게 되면 ‘-시-’를 주체 존대 형태로 규정할 수 있으나, 이를 주어가 아닌 다른 성분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시-’를 주체 존대 형태로만 규정할 수 없게 된다. 그 때에는 적어도 同音異意의 두 ‘-시-’를 상정해야 될 것이다.

필자는 ‘-시-’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국어에 重主語 構文의 설정이 불가피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현대 언어학적 이론을 토대로 많은 논의와 제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중주어 구문을 부정할 만큼 개선된 해석은 발견되지 않는다. 중주어 구문이란 서술절을 갖는 複合文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도 두 개의 주어와 두 개의 서술어를 가지므로, 엄격히 말해서 重主語란 용어는 그리 적

결한 것이 못된다.

근래 증주어 구조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대안은 主題 構文으로 보인다. 上位 主語를 主題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주제란 적어도 두 가지 개념의 것이어서 순수 談話 概念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는 文法과는 무관한 것이 되며, 이를 순수 文法 概念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는 주어 외에 새로운 개념의 文 成分을 설정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는 기술상 많은 문제를 수반하게 한다.

重主語文을 받아들이는 경우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에 의해 존대되는 주체는 下位文의 주어 즉, 직접 관련된 文의 주어 또는 上位文의 주어가 된다. 주체 존대를 이렇게 확대 해석하더라도 여전히 이해가 쉽지는 않은 매우 표현들이 나타난다. 여기에도 몇 가지 유형이 있다.

3) a. 김선생님께 책이 많으시다.

이 文은 與格 成分(김선생님)이 존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주체 존대로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대우에 대하여 그동안 몇몇 연구가 있었지만 별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 것 같다. 그 주된 노력의 방향은 모든 ‘-시-’를 가능한 限 하나의 原理 아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은 與格 成分을 어떻게든 主語로 해석해 보려는 것이었으나, 아무리 추상적인 내면 구조를 상정하더라도 그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에 3a)의 이해를 위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내면 구조를 상정해 보았다.

3) b. 김선생님은 김선생님께 책이 많으시다.

이 文은 결과적으로 重主語文이 되었고, 존대된 것은 與格 成分이 아니라 상위 주어인 ‘김선생님’이 된다. 다만 3b)가 3a)로 된 것은 통사적인 절차가 아닌 談話 省略에 의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담화 생략이 전제되지 않는 한 3a)는 非文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다음과 같은 文에서는 ‘-시-’가 그 직접적인 主體와 관련된다.

4). 승호는 아버지께서 회사에 다니신다.

그러므로, ‘-시-’가 上位 主體와 호응되는 조건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3)에서 예견되는 바와 같이 서술어가 ‘있다, 없다, 많다, 적다’ 등 所有性을 의미 자질로 할 때 ‘-시-’의 上位 主體 존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5) a. 김선생님은 兩親이 있으서,

b. 김선생님은 兩親이 계셔.

a의 ‘있으서’는 상위 주체를 존재하는 데 대하여, b의 ‘계셔’는 ‘下位 主體(兩親)’를 존재한다. ‘있다’는 적어도 所有와 存在의 두 가지 의미가 구분되어 그 존재어는 각각 ‘있으시다’와 ‘계시다’로 달리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文들도 주목의 대상이 된다.

6) a. 아버지께서도 저 건너 철수가 보이세요?

b. 아버지께서도 저 건너 철수가 보여요?

현재 a, b가 並用되지만 a가 우세해 보인다. 이 重主語文에서도 상위 주체가 존재되고 있는데, 서술어가 ‘보이다’처럼 被動詞이고 상위 주어와 그 行爲主일 때에도 상위 주체 존재가 가능해진다. 다음도 같은 유형의 예문이다.

7). 수사 반장님은 그 범인이 잡히셨어요?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도 상위 주체 존재가 성립되고 있다.

8) 할머니께서는 이 아이가 무거우세요?

9) 할아버지께서는 이 고개가 높으세요?

역시 직접적인 主體를 제쳐 놓고 상위 주어와 대우의 일치를 보이는 중주어문들인데, 이러한 경우의 서술어는 형용사 또는 狀態性을 의미 자질로 하는 용언이다. 이들 용언 자체는 상태를 나타내지만, 위와 같은 유형의 중주어문에서는 상위 주체의 행위, 즉 아이를 업거나 고개를 넘는 것과

같은 행위가 전제되고 있어서, 상위 주체는 일종의 行爲主로 해석될 수 있다.

‘-시-’가 상위 주체와 대우의 일치를 보이면서 가장 미묘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上位 主體와 下位 主體가 의미상 대략 ‘所有一附屬’과 같은 관계에 있는 중주어문의 경우다.

- 10). 할아버지는 눈이 크시다.
- 11). 할아버지는 마당이 넓으시다.
- 12). *할아버지는 손녀가 예쁘시다.
- 13). *할아버지는 손녀가 유치원에 다니신다.

소유—부속의 관계가 뚜렷한 10)에서는 존재가 자연스러우나 그렇지 못한 12), 13)은 불가능해 보이며, 특히 이 두 예에서 보듯이 서술어가 동사일 때에는 형용사일 때보다도 더 허용도가 떨어진다.

지금까지 ‘-시-’에 의한 주체 존재 및 상위 주체 존재의 조건 등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비단 주체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에 적용되는 존재 유보 조건이 있다. 이것은 聽者가 화자나 여타의 존재 대상 인물보다도 상위에 있을 때 어떠한 존재 표현도 실현되지 않는 조건인데, 이를 上位 聽者 制約이라 한다.

3. 聽者 待遇

청자 대우는 청자에 대한 話者의 尊待 또는 下待를 의미하는 것으로, 終結形에 나타나는 語尾와 존재의 補助助詞 ‘-요’에 의해 표현된다. 이 대우는 다른 대우의 경우와 달리 대우의 등분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話階로 이루어진다. 화제 체계는 語尾로만 이루어지는 네 등급의 一次 話階와, 반말 형태 및 ‘-요’로 표현되는 두 등급의 二次 話階의 二元的體系로 되어 있다.

話階 區分 및 각 화제를 표현하는 형태를 일부 보이면 다음과 같다.

14). 화제와 표현 형태

1 차 화제

- 높임 {아주높임(하십쇼체) : -옵니다, -되시오, -되니까
예사높임(하오체) : -오, -소
낮춤 {예사낮춤(하게체) : -네, -게, -나
아주낮춤(해라체) : -는다, -어라, -느나

2 차 화제

- 높임(해요체) : -요
낮춤(해체) : -어, -지, -는가

종래 반말에 대하여 단편적인 논의 및 이에 따른 여러 가지 異見을 보여 왔지만 이제는 거의 정리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 반말은 話階上 아주 낮춤이나 예사낮춤의 대상에 통용될 수 있는 두루 낮춤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形態 配合上 존대 조사인 ‘-요’와 결합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반말에 ‘-요’가 결합된 형태는 화제상 반말과는 대조적으로, 아주높임이나 예사높임의 대상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두루 높임의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반말과 반말에 ‘-요’가 결합된 반말높임은 화제상으로는 형태 배합상으로는 정연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반말 형태에는 예외 없이 ‘-요’가 뒤따를 수 있으며, ‘-요’ 결합 형태에서 ‘-요’를 배제시키면 반말이 된다. 단순히 높임과 낮춤으로 二分되는 이 둘의 話階性은 어떤 면에서 네 개의 복잡한 일차 화제 사용을 單純化 할 수 있다.

반말 형태에는 ‘-어, -지, -걸, -거든, -께, -게, -데, -나, -고 말고, -는가’ 등등 많은 수에 이르는데, 반말은 이들 형태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統辭의으로 표현되는 반말도 있다.

15)a. 너 뭐 먹니?

- b. 빵.
c. 빵요.

16)a. 너 누구하고 식사했니?

- b. 정 군이하고.
c. 정 군이하고요.

위에서 각 b는 a에 대한 응답으로서, 談話 省略에 의해 한 成分만 남은

것이다. 이러한 응답은 話階上 예사낮춤, 아주낮춤의 구별 없이 낮춤 일반에 통용되는 두루낮춤이며, 여기에 존대 조사 ‘-요’가 결합될 수 있고, ‘-요’가 결합된 형태는 화계상 두루높임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실은 b를 모두 반말로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그리하여, 반말에는 형태적인 반말과 통사적인 반말이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2차 화계의 二元性和 관련하여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格式性이다. 화계와 격식성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화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여 단순히 格式과 非格式으로 양분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화계는 그 數가 많을수록 格式性이 높아진다. 따라서 네 화계의 1차 화계가 두 화계의 2차 화계보다 격식성이 높을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반말과 반말높임은 非格式을 그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격식성은 同位者間的 수평 관계와 上下位者間的 수직 관계로 구분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同位者間的 격식성을 보면, 이는 화계의 高低와 비례한다. 즉, 격식성이 높아질수록 높은 화계가 사용되고, 격식성이 떨어질수록 낮은 화계가 사용된다. 따라서 同位者 사이에서는 ‘아주높임>예사높임>예사낮춤>아주낮춤’의 順으로 격식성이 낮아져서, 아주낮춤에서는 거의 격식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동위자 사이에서 격식성이 완화되거나 덜 엄격하게 되면 非格式體인 2차 화계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음으로 上下位者 사이의 격식성을 생각해 보면, 上下位者 사이에 격식성이 요구될수록 화계는 兩極化 현상을 보인다, 즉, 격식성이 요구될수록 上位者는 下位 화계를 지향하게 되고, 下位者는 上位 화계를 지향하게 된다. 그리하여, 수직 관계에서 보면 아주높임과 아주낮춤이 예사높임이나 예사낮춤보다 더 높은 격식성을 가지게 된다.

위에 말한 화계와 격식성의 관계는 대략 다음과 같은 비례 원리로 요약할 수 있다.

17). 화계와 격식성의 比例 原理

① 화계의 數는 격식성과 비례한다.

- ② 수평 관계의 격식성은 화제의 高低와 비례한다.
 ③ 수직 관계의 격식성은 화제의 兩極化와 비례한다.

4. 客體 待遇

客體란 동사로 실현되는 행위가 직접 미치는 인물을 가리키는바, 文에서 直接目的語나 間接目的語의 대상 인물이 된다. 객체 대우도 객체에 대한 존대와 비존대로 양분되는데, 이러한 대응을 보이는 동사의 數는 그리 많지 않다 ‘주다—드리다’, ‘테리다—모시다’, ‘말하다—여쭙다’ 등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다.

18). 철수가 그 책을 김선생님께 드렸다.

위 文에서 ‘드렸다’는 客體인 ‘김선생님’에 대한 존대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객체 존대에서 늘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은, 객체를 존대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며, 이와 관련하여 객체와 화자 및 객체와 주체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의 문제였다. 위 예문에서 보듯이 이것만 가지고는 객체가 존대된 것이 객체와 누구와의 관계 때문인지 알 수 없다.

- 19)a. *문현아, 그거 어머니께 갖다 드려라. (화자: 祖)
 b. 문현아, 그거 에미 갖다 줘라.
 20)a. *김일병, 이거 소대장님께 드려라. (화자: 대대장)
 b. 김일병, 이거 소대장한테 줘라.

19), 20)에서 객체가 주체의 존대 대상인데도 각 a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가 아니라 화자와 객체와의 관계에서 대우의 일치가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도 확인된다.

- 21) a. 경수야, 가서 아버지 모시고
 와. (화자: 경수의 선생님)
 b. 경수야, 가서 아버지 데리고 와.

a가 정상적인 표현이겠으나, 話者의 기분 또는 화자와 객체와의 관계 등

에 따라 b도 가능하다. 객체와 주체가父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a, b가 모두 가능한 것은 객체 대우가 기본적으로 객체에 대한 화자의 대우 태도에서 결정됨을 입증해 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 22) a. *할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머니께 드렸다. (화자 : 손자)
 b. 할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머니한테 주셨다.
 23) a. *도둑놈들이 아버지를(결박해서) 모셔 갔다.
 b. 그 도둑놈들이 아버지를(결박해서) 데려 갔다.

위 두 예에서 객체는 화자의 존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존대형이 사용되지 못한다. 이들 예문이 가지는 공통점은 객체가 화자의 존대 대상은 되지만 주체의 존대 대상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우리는 객체 대우가 화자의 待遇 意圖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울러 객체가 주체의 존대 대상이 될 수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제약이 수반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예문은 또 이러한 制約에 대한 反證例가 되고 있다.

- 24) a. 이 도둑놈들아, 우리 아버지 잘 모시고 가(모시고 가야 해).
 b. *이 도둑놈들아, 우리 아버지 잘 데리고 가(데리고 가야 해).

24a)는 23a)와 그 관련 인물이 동일한데도 그 경우와는 반대로 b 대신 a가 성립된다. 이들 두 文의 차이는 前者가 平叙文임에 대하여, b는 명문 또는 當爲文이다. 평서문이 어떤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서술임에 비하여 명령문이나 당위문은 화자의 의도가 표현되는 文이기 때문에 객체와 주체 사이의 관계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객체 존대는 기본적으로 客體에 대한 話者の 존대로 규정되는데, 다만 화자의 의도가 작용되지 않는 非意圖文에서는, 객체가 주체의 존대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주체 대우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上位 聽者 制約은 객체 존대에도 적용된다. 즉, 청자가 最上位者일 때에는 객체에 대한 화자의 존대 표현은 유보된다.

5. 要約 및 結語

지금까지 主體 待遇, 聽者 待遇, 客體 待遇를 중심으로 국어 대우법을 개관하였는바, 이를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대우법이란 대우 관련 인물 사이의 縱的位階 및 橫的親疎 관계가 단위에 실현되는 대우의 규칙이다. 대우가 성립되는 데는 종적인 위계와 횡적 친소와 같은 사회적 요인 외에 화자의 심리적 태도 또는 화자와 대상 인물 사이의 物理的, 心理的 거리와 같은 요인이 작용된다.

主體 尊待는 주체 또는 상위 주체에 대한 화자의 존대로, 형태소 ‘-시-’에 의해 표현된다. 聽者 待遇는 語尾와 助詞 ‘-요’에 의해서 話階로 실현되는데, 이 화계 체계는 아주높임, 예사높임, 예사낮춤, 아주낮춤의 네 등분으로 된 一次 話階와 (두루)높임, (두루)낮춤의 두 등분으로 된 二次 話階로 구성되며, 이를 화계는 格式性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客體 尊待는 객체에 대한 화자의 존대를 나타내는데, 非意圖文의 경우 객체가 주체보다 上位여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그리고, 객체 존대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聽者가 最上位일 때에는 존대 표현이 유보된다.

우리의 언어 현실은 위에 말한 대우법에 늘 일치되지는 않는다. 대우법은 특히 世代, 지역, 사회적 계층, 가정 등의 배경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가령, 위에서 말했던 話階 體系 같은 것이 적어도 20代 이하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그 전형적인 한 예라 하겠다. 本稿에서는 대략 장년층 이상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표준어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하겠다.*

參 考 文 獻

紙面 關係로 생략함.